

‘5월 무적’ KIA 3연승 휘파람

윤석민 7이닝 무실점 쾌투... 두산에 2-0 완승



돌아온 톱타자 이용규 안타에 득점까지

호라이 군단이 3연승을 내달렸다. KIA 타이거즈가 10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즌 4차전에서 에이스 윤석민의 호투로 2-0 완승을 거뒀다. 지난 주말 SK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돌아온 KIA는 두산을 제압하며 시즌 첫 3연승에 성공했다.

지난 7일 넥센을 상대로 8이닝 1실점(비자책)의 호투로 2승을 챙겼던 윤석민은 두산을 7이닝 무실점으로 막고 시즌 3승째를 수확했다.

윤석민은 최고 151km의 직구와 142km의 고속슬라이더를 묶어 7회까지 2피안타 4사사구 6탈삼진 무실점의 투구를 선보이며 시즌 방어율을 4.46에서 3.77까지 낮췄다.

1회 이범호의 타점본능이 발휘됐다. 2

2사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범호가 두산 선발 니퍼트의 초구를 받아 좌전 안타를 만들어내며 타점을 추가했다.

KIA는 선취점을 만들었고도 후속타 불발로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5회 1사 1·2루에서 추가득점에 실패한 KIA는 6회말 신종길의 안타와 2루수의 송구실책 그리고 쪽투로 무사 2·3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김주형·임한용·이현곤이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7회말 돌아온 톱타자 이용규의 안타가 터졌다. 이용규는 김선빈의 희생번트 2루에 진루한 뒤 좌중간을 가른 김원섭의 타구때 홈을 밟았다. 이용규의 득점으로 KIA는 삼성에 이어 통산 두 번째로 팀 1만6000득점을 달성했다.

허벅지 근육 부분파열로 재활을 해왔던 이용규는 복귀 첫날 3타수 1안타 1득

점으로 1군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손영민은 소방수로 나서 팀의 승리를 지켰다.

윤석민에 이어 8회부터 마운드를 넘겨 받은 손영민은 8회와 9회를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으며 시즌 첫 세이브를 올렸다.

팀 3연승의 주역이 된 윤석민은 “지난 두산전 등판때 최악의 피칭을 했는데 오늘은 컨트롤에 신경쓰면서 차분하게 경기를 하자고 생각했다. 직구·슬라이더도 좋았고 커브도 잘 들어가는 등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았다”고 말했다.

또 “6회말 공격에서 점수가 나지 않으면서 7회초 최대한 집중해서 던지겠다고 생각했는데 첫 타자 김동주를 볼넷으로 내보냈다. 이때가 승부처였는데 김현수를 병살타로 잡아내면서 이길 수 있었다”며 “개인적으로도 3연승이고 팀도 3연승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감 잡았어”

10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즈와의 경기에서 KIA 윤석민이 선발 등판해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수원FC 국제 청소년(U-20) 축구대회 우루과이와 한국의 경기에서 한국 김훈성(가운데)이 우루과이 선수들과 볼 디딤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FC 홈 3연승 도전

오늘 오후 7시 광주서 울산 현대와 컵대회 5라운드

광주 FC가 홈 3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11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 현대와 리시엔캐시컵 5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광주는 앞서 열린 서울·대전과의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연달아 승리를 챙기는 등 안방에서 3승1무1패의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광주는 리그컵 8강 진출이 좌절된 상황이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정규리그 포환

3연승에 도전한다. 상주와의 리그컵 4라운드에서 3-2로 첫 승을 챙겼던 광주는 부상에서 복귀하는 박기용을 필승카드로 앞세워 울산전 설움을 다잡고 있다.

광주는 지난 3월20일 울산과의 정규리그 대결에서 전반 35분 김동섭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심판관정으로 프리킥과 페널티킥으로 점수를 내주

며 1-2로 역전패를 당했다.

이번 경기는 광주의 새로운 전력을 시험하는 무대라도 활용 될 전망이다.

지난 상주와의 경기에서 광주는 주전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두 명의 김성민의 활약 속에 3-2 승을 거뒀다.

한편 3승1무 무패행진으로 B조 1위에 올라 있는 전남은 부산원정에 나선다.

올 시즌 컵 대회에서 4경기를 치르는 동안 무실점을 기록한 전남은 특유의 '질식수비'와 최근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1골·1도움)를 작성한 이현승을 내세워, 3승1패로 전남을 쫓고 있는 2위 부산 제압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U-20 수원컵 3위

우루과이와 1대1 ... 1승1무1패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기록해 제5회 수원컵 국제청소년(U-20) 대회에서 3위에 그쳤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우루과이와 한 골씩 주고받아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1승1무1패가 된 한국(승점 4점)은 나이지리아에 밀려 3위에 머물렀다.

나이지리아(1승1무1패) 역시 승점 4점에

골 득실도 한국과 똑같은 0점을 기록했지만, 다득점 원칙에 따라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3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2점을 넣은 데 반해 나이지리아는 총 6점을 기록했다.

2003년 원년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한국은 2005년과 2009년에 이어 4번째 우승컵을 노렸지만 대회 내내 골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며 고전했다.

반면 우루과이는 2승1무(승점 6점)로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고 뉴질랜드는 1승2패로 최하위가 됐다.

여수서 전국요트대회

12~16일 소호동 경기장

대한요트협회와 해양경찰청은 오는 12~16일 여수시 소호동 요트경기장에서 대한요트협회와 공동으로 제11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내년 8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 국가대표 3차 선발전을 겸한 것으로, 옵티미스트 등 17개 종목, 33개 부에서 요트 210척, 선수 250여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대회 개막식 식전행사는 해경청 관현악단 연주, 여수시립국악단 공연, 헬기 축하비행, 관람정 운영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오월광주서 5·18 전국태권도대회

11~18일 빛고을체육관 ... 중고생 선수 총 1732명 참가

빛고을 광주에서 태권도 꿈나무들의 힘찬 발차기가 펼쳐진다.

제13회 광주 5·18 민중항쟁추모기념 시장기 전국남녀중고태권도대회가 11일부터 18일까지 8일 동안 서구 화정동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태권도협회·광주시·5·18태조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시태권도 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남고부 697명, 남중부 632명, 여고부 249명, 여중부 154명 등 총

1732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대회는 편급과 플라이급, 페더급 등 11체급(고등부 10체급, 중등부 11체급)으로 나눠 체급별 토너먼트로 치러지며, 전 종별 전자번호기(KP&P)를 사용한다.

경기시간은 1분30초씩 3회전으로 열리며 중간휴식 시간으로 30초가 주어진다. 무승부시에는 승부를 가리기 위해 1분30초 4회전 씨든데스가 적용된다.

개인 체급별 1·2·3위에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며 각 부별 최다득점자에게 순금메달, 상장 및 트로피가 주어진다. 부별 종합우승팀 지도자에게도 순금메달과 상장, 트로피를 수여할 예정이다.

부별 단체우승팀 및 2·3위팀 그리고 감독상과 장려상 등 단체시상도 이뤄진다.

광주시태권도협회 윤관석 회장은 “공정한 판정을 위해 노력해오는 등 성공적인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며 “대회를 통해 5·18 정신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또 전국에서 광주를 찾는 학생들에게 광주의 인심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5·18 전국태권도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5·18 민주화 운동의 참뜻을 알리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999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13회를 맞는다.

/김여울기자 wool@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하였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중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종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02)765-994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